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8월 호)



교회 순방 설교와 강연을 마치며: 지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나누는 감사의 여정



〈사진: 이경식 수석부총장(국제협력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남가주 지역의 여덟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와 강연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온연합감리교회(이창민 담임목사)와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담임목사)에서는 설교했으며, 샌디에고 예담교회(이순영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안정섭 담임목사),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전재홍 담임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이종구 담임목사), 드림교회(정춘욱 담임목사)에서는 설교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6월 14일 동양선교교회 설교〉



〈사진: 7월 12일 드림교회 설교〉



〈사진: 6월 21일 월셔연합감리교회 설교와 강연을 마친 후〉

각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정성 어린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담임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교우들과 직접 대화하며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교회마다 역사와 규모, 지역적 환경은 달랐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충실히 전하고 교인들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지역교회의 사역이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이 남가주 지역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교회 사역센터(The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y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설립이었습니다.

센터의 첫 사업은 2025년 4월에 개최한 공개강좌였습니다. 130명이 넘는 분이 참석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 주셨고, 이와 같은 행사를 매년 열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제가 남가주 지역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교와 강연을 전하는 순회 사역을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역은 각 교회의 현실과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고, CST가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더욱 든든히 세워 갈 수 있을지 배우는 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한인 이민교회 미래 포럼 &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에는 목회자와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각각 별도로 진행하고, 9월 11일에는 평신도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각 토크 콘서트에는 짧은 음악 공연도 곁들여, 진지한 대화와 따뜻한 문화적 나눔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순회 사역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설교와 강연을 통해 받은 사례비 전액인 7,100달러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의 한인지도자장학금(Korean Leadership Scholarship)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LA연합감리교회가 10,000달러, 월셔연합감리교회가 2,000달러를 같은 장학기금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순회 사역을 통해 총 19,100달러가 한인지도자장학금으로 전달되어, CST에서 공부하며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섬길 한인지도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귀한 뜻에 동참해 주신 두 교회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회 설교와 강연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교회의 목회자와 교우들을 만나 그들의 기쁨과 고민, 비전과 사역을 들으며 저 자신이 배우고 격려받은 여정이었습니다. 귀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덟 교회의 담임목사님들과 모든 교우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교회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사 정정: 7월 뉴스레터에 소개된 Cal-Pac 연회 목회자 파송자 명단에 다음 사항을 정정합니다:

- 최요셉 목사님이 Crescenta Valley UMC로 파송받으셨습니다.
- 로스펠리즈 UMC로 파송받으신 이영성 목사님의 성함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성함으로 기록했습니다.

Save the Date

한인 이민교회 미래 포럼 & 토크 콘서트

2027년 9월 10일(금) – 11일(토)

첫째 날

목회자 토크 콘서트
목회자 배우자 토크 콘서트
각각 별도 진행

둘째 날

평신도 토크 콘서트

진지한 대화와 따뜻한 문화적 나눔,
그리고 짧은 음악 공연이 함께합니다.

①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됩니다.



〈사진: 동문회 회장 최신성 목사〉

귀한 마음을 담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문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온 동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해 주셔서 캠퍼스에서 나누었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고,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모임이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역을 향한 열정과 힘을 다시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의 동문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고 참석을 권해 주셔서, 더욱 많은 동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동문들과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동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귀한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불꽃감리교회와 공성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10월 16일(금) 오전 11시 불꽃감리교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 한국동문회
회장 최신성 목사
계산중앙교회



You're Invited To

2026 클레어몬트 한국동문회

모든 동문을 초대합니다

동문회장: 최신성 목사(계산중앙교회)



2026년 10월 16(금)

오전 11시

불꽃교회(공성훈 목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11

CST에서의 새로운 시작_김종우(Master of Divinity 입학)



〈사진: 김종우 신입생〉

안녕하세요. 2026년 가을학기,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에서 M.Div. 과정을 시작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김종우입니다. 2026년 8월 CST 한인 뉴스레터를 통해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CST의 인연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가 재학 중이던 감리교신학대학교 여성훈 교수님의 미주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클레어몬트에 있던 CST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의 기억 가운데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곳은 ‘Kresge Chapel’입니다.

채플에 들어서서는 순간 느꼈던 깊은 감동과 그 자리에 앉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드렸던 기도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도가 이번 입학을 통해 응답되었습니다.

짧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신학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며 유학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을 넘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유학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서의 목회에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길지 않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목회 현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얹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목회 현장의 여러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왜 다시 M.Div. 과정을 밟으려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이 과정을 선택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제 마음에 떠오른 말은 “다시 처음으로”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학의 기초를 더욱 넓은 시각에서 다시 다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접어두었던 유학의 꿈을 다시 펼쳐 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9년 전의 바람은 그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 막연한 소망이 구체적인 비전으로 자리 잡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과 과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게도 CST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글이 뉴스레터에 실릴 즈음이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씨름하며 “다시 처음으로”라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막연함과 막막함도 느끼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신 자리인 만큼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Westwood 캠퍼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감당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CST에서의 새로운 시작_김 현(Master of Divinity 입학)



〈사진: 김 현 신입생〉

안녕하세요. 2026년 가을학기 CST M.Div. 과정에 입학하게 된 김현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였으며, 앞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CST에서 공부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학교를 졸업하셨고, 학교의 학문적 전통과 공동체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클레어몬트 동문 모임에서 이경식 부총장님을 직접 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총장님께서 학교의 비전과 교육 방향을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과 미래를 귀하게 여기시는 따뜻한 모습으로 큰 인상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제가 클레어몬트 진학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클레어몬트의 에큐메니컬하고 개방적인 신학 전통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신학적 관점을 배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만나 함께 질문하고 연구하며, 더욱 넓고 깊은 신학적 시야를 갖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경과 신학을 성실히 연구하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탐구하도록 돕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학문과 목회를 조화롭게 이어 가며 교회와 신학교를 함께 섬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품어 온 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CST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배우고 성장하게 될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ST에서의 새로운 시작_박서연(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입학)



〈사진: 박서연 신입생〉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학기에 CST에서 신학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예가교회’라는 곳에서 평신도로서 지난 15년간 교역자님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인 교인들과의 사귄을 통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실천적 여정을 통해 저의 이해와 실천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저는 가장 어린 미취학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과목 교사, 성경 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교육 및 지원자의 역할을 해 오며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대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엿한 형제로 성장한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6-7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인 ‘가족 모임’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하며 형제를 섬기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배우고, 또 실천하며 기쁨과 보람을 누려왔습니다.

주 1회 정기 가족모임에서 함께 하는 ‘아가페 식사’에서는 집집이 돌아가며 식사와 연회를 준비합니다. 아가페 식사의 윤리는 ‘배려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 참된말과 친절함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시기, 짜증, 무시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상말이 아닌, 서로에게 진실되고 인내함으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자는 다짐입니다. 저의 성장도 가족 모임의 이러한 교육 안에서 가능했듯이, 저 이후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고, 실천으로 보여주고, 또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성숙한 형제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그 행복이 세상 밖으로도 넘쳐흐르는 비전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는 인류학자로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활동에 종사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난민지원기관에서 일한 바 있고, 법무부 난민조사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해오면서, 한 사회의 소수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쌓아온 이 영역에 신학을 접목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곳곳에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CST에 진학합니다. CST는 정의, 포용, 섬김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러한 저의 비전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숙함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CST 신학생의 여름방학, 배움과 도전의 현장



〈사진: 이해인 전도사 M.Div. 재학 중〉

이 수업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이웃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고, 사역 현장에서 다양한 영혼을 돌보는 밑거름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언어 훈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Crescenta Valley UMC와 Tujunga UMC, 두 교회에서 영어권 회중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와 설교, 성경 공부, 청소년 모임 등 사역 전반을 영어로 진행해야 하기에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깊이 있는 언어 구사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영어 미디어 콘텐츠와 현지 팟캐스트를 꾸준히 듣고, 거주지 인근의 영어 회화 학원과 지역 도서관의 언어 프로그램에 등록해 매주 수업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역의 지평과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Cal-Pac 연회 North District가 주최한 ‘Young Adult HARAMBEE DAY’에 참석했습니다. Tujunga UMC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UMC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세대 사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혼 돌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현장을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CST 국제협력처에서 이경식 부총장님과 김남중 부학장님을 도와 행정 및 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LA연합감리교회 한글학교 교사로서 한인 2·3세 아이들을 위한 새 학기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사역 외에도, 이번 방학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 온 비행의 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Van Nuys 공항에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PPL) 취득을 목표로 지상학 공부와 실전 비행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조종사(Student Pilot)로서 하늘을 오르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은 제 삶에 또 다른 시야와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그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배움의 시간들을 감사히 여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Bible Study in Tujunga UMC〉



〈사진: Cal-Pac Young Adult gathering〉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 목회학 석사(M.Div.) 입학 안내

공화, 정의, 소속감을 추구하는 신학교육 -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위한 여정,
CST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세요.

M.Div. 재학생 인터뷰 영상



장학금 지원

- 합격 시 장학금 보장
-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목회 사역지 지원

- 목회 사역지와 연결시켜 줌
- UMC(미연합감리교회) 또는 타교단 목사 안수 과정 지원 및 상담



유학 생활 정보 제공



지원 마감일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봄학기 우선 마감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봄학기 최종 마감
- 2026년 6월 1일 - 2026년 가을학기 최종 마감

지원 요건

항목	내용
지원서, 이력서/CV	온라인 작성
자기소개서	약 1,000단어
영문 성적표	학부 및 대학원 (해당 시)
영문 추천서	학문/전문 2부, 목회/일반 1부
입학지원비	\$50
영어 능력	TOEFL/ IELTS/ Duolingo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소속 13개 신학대학원 중 하나로, 공화(Compassion), 정의(Justice), 소속감(Belonging)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CST는 성서 해석과 예술적 창조, 자기 성찰과 치유, 해방적 실천과 전통의 통합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 생태적 책임을 함께 배우고 실천합니다. CST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다양성과 겸손을 품고 전 세계 기관들과 연대하여 생명과 정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 ✉ admission@cst.edu
- ✉ 한국어 문의: kef@cst.edu
- 🌐 www.cst.edu
- 🌐 입학 지원 마감일 안내: <https://cst.edu/admissions/deadlines-requirements/>

전문상담 박사 과정 입학설명회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 이상 상담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영성통합 상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해외 유학 없이 한국에서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과정입니다.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

- 전 세계 어디서나 수학하며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 학위 취득
- 목회상담 + 심리상담을 통합한 영성 기반 전문 상담 교육
- 한국 주요 상담협회 1급 자격증 지원 요건 충족 가능

학 제

100% 온라인 수업

총36학점(한 과목당 4학점)
겨울, 봄, 여름, 가을 학기제로 운영

교수진

이경식, Frank Rogers, Jr,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남중
김정희, 송민환, 김지훈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졸업장 수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석사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또는 관련 분야)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1)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상담학 석사와 더불어 기초 신학 과목(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을 학부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자
- 신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 신학 과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한글로 제공하는 입학 원서 작성 문서를 여기에서 다운 받으세요.)

* 5기생은 가을학기를 위해서 **11월 20일 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등록금/장학금

등록금은 한 학점당 미화 \$1,100이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논문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한국교육학습정보관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지도 교수 2명의 논문 지도를 받으며 논문 최종 단계에서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졸업

입학설명회 일정

온라인
(ZOOM)

8월 8일, 22일
9월 12일
10월 10일, 24일
11월 14일

*한국 시간 기준

토요일 오전 09시

ZOOM ID : 883 000 4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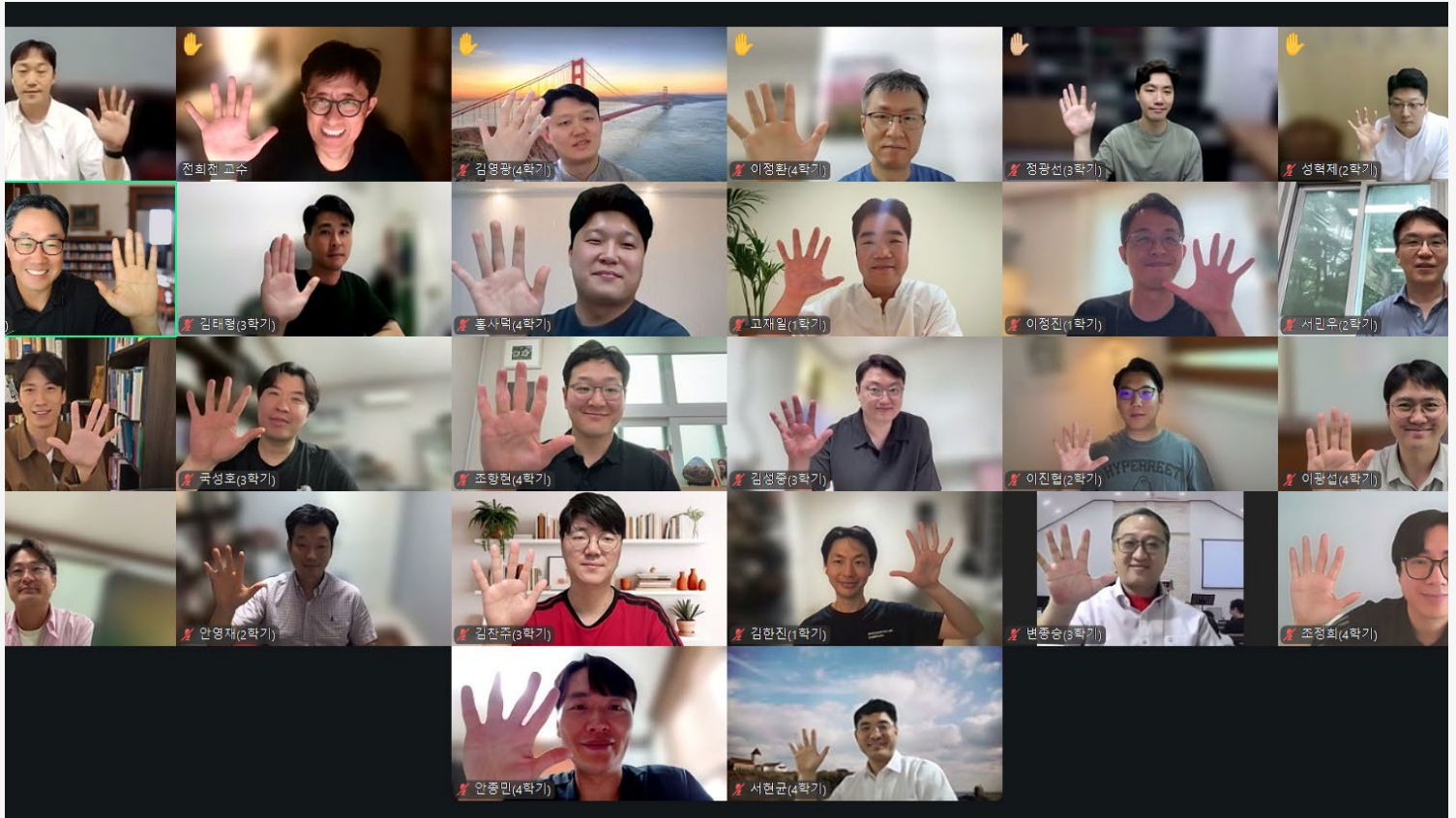
문의 010-3243-7568 (김민정 조교)



포스트모던 신학에서 상호문화 영성까지:
CST 목회학박사(D.Min.) 여름 집중과정 성료

클레어몬트 신학교(CST) 실천신학 목회학박사(D.Min.) 프로그램이 10일간의 여름 집중과정을 뜻깊게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5개국에서 약 24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해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함께 배우고 토론했다.

이번 집중과정은 「포스트모던 신학과 목회」와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포스트모던 시대가 제기하는 거대서사의 붕괴와 권력, 배제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한편,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또한 갈등과 치유, 변혁이라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오늘의 목회자와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함께 모색했다.



〈사진: 포스트모던 신학과 목회_전희천 교수 수업 현장〉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의 관점에서는 주변성(marginality), 타자의 얼굴, 상호 환대, 연대와 상생, 공존과 동행 등의 핵심 개념을 깊이 탐구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목회·선교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배우고 공존하면서 미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아포리아(aporia)’, 곧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삶과 목회의 난제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경험하는 막막함과 깊은 성찰의 순간을 실천신학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현실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통찰과 창조적인 목회 실천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로 이해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이루어진 이번 학문적·실천적 교류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도전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배움과 성찰이 각자의 목회 현장으로 이어져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미래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ST 실천신학 목회학박사(D.Min.) 프로그램은 매년 1월 한국에서 2주간의 대면 집중과정을, 7월에는 실시간 온라인 여름 집중과정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한인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학업과 사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7년 1월 입학을 위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사진: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_조혁 교수 수업 현장〉



〈사진: 고재일 목사, D.Min.재학중〉

Salam sejahtera!(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찰레곤에서 찰레곤 늘푸른교회(기감)를 섬기고 있는 고재일 목사입니다. 2026년 여름학기부터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시간은 움츠러들어 있던 제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목회의 자리에서 희미해졌던 부르심과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강성 지역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무슬림 이웃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줌(ZOOM)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비대면 수업이 얼마나 깊이 있는 배움과 소통을 가능하게 할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열정은 화면 너머에서도 생생히 전해졌고, 목사님들과의 토론 역시 거리의 한계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깊고 진지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방식이 아닌, 같은 질문을 품고 함께 고민하며 삶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이었던 전희천 교수님의 「포스트모던 신학」은 수많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그 배경을 배우는 과정이어서 다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학문적 언어와 더불어,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서 우려나온 경험적 언어를 들으며, 포스트모던 사상이 단순한 과거의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학과 목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조혁 교수님의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은 앞서 배운 학문적 이론을 실제 목회와 삶의 현장으로 이어 주는 실천적 시간이었습니다. 상호문화 신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지난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네시아 찰레곤의 목회 현장에서, 이 배움을 어떻게 살아 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열정으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김남중 교수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배우며 서로의 삶과 목회를 나누었던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픔에 공감하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 CST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겨울학기부터 CST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민우 목사입니다.

2년 전, 이경식 교수님과 김남중 교수님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여대 대학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CST 신학대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 한동안 목회에만 집중하고 있던 저에게, 두 교수님과의 만남은 목회 현장에 필요한 신학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만남을 시작으로 저는 CST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서민우 목사, D.Min.재학중〉

이번 여름학기에는 전희천 교수님의 포스트모던 신학(Postmodern Theologies)과 조혁 교수님의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Intercultural Theology and Spirituality) 수업을 들었습니다. 두 과목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목회 현장이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들은 현대신학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적 현실을 다루었으며, 관용, 포용, 연대, 환대와 같은 가치들을 신학적·철학적으로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주어진 주제를 두고 학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보다 새롭고 건강하게 세워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Zoom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만의 장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발제하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와 학업을 병행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교단과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목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함께할 때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목회적 열정과 통찰을 접할 때마다 풍성한 아이디어와 도전을 얻게 됩니다. 또한 김남중 교수님께서 학기마다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과목들과 졸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더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CST 목회학 박사과정이 지향하는 가치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오늘의 목회 현장이 마주한 도전과 과제에 깊이 있게 응답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줍니다. 목회 현장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보다 건강한 목회를 모색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CST 목회학 박사과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만나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조정희 목사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교육,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종종 익숙한 신학적 언어와 내가 경험한 문화적 세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와 성도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신학의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여겨 온 관점과 질문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필요 속에서 CST의 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조정희 목사, D.Min.재학중〉

이번 여름학기에는 조혁 교수님의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 치유, 화해, 그리고 변혁적 참여」와 전희천 교수님의 「포스트모던 신학」을 수강했습니다. 두 과목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는 듯했지만, 제게는 “교회와 목회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 익숙한 질서 밖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 수업은 그동안 타자를 나와 교회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시선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정용의 마지널리티,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 호미 바바의 제3의 공간을 배우며, 오히려 주변성이 신학의 맥락이자 방법이며 내용임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신학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듣고 먼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스트모던 신학」 수업은 제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신학의 언어와 권위의 구조를 다시 살피게 했습니다. 니체의 ‘신의 죽음’, 푸코의 권력과 지식, 데리다의 해체와 환대를 배우며, 신학이 진리를 말하는 방식 속에도 특정한 시대와 문화, 권력의 흔적이 들어 있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철학 용어들이 꽤 높은 벽처럼 느껴졌지만, 포스트모던 신학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굳어진 오해와 배제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CST의 장점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각자의 목회 현장과 연결하여 성찰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과 지역, 사역 경험을 가진 동료 목회자들과의 토론은 혼자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질문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강의와 학생들의 실제 목회 경험이 만나는 순간마다 배움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학기는 더 많은 지식을 쌓은 시간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로서 제가 어디에 서 있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익숙한 답에 안주하지 않고, 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차이를 지우지 않는 환대와 치유의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동료 목회자님들, 특별히 모든 시간을 함께 하며 서포트해주신 김남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옛날, 같이 가는 새날”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한인 동문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곳에서 동문들의 발자취와 현재 활동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과 격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에서 시작된 디지털 목회_이경석 목사



<사진: 이경석 목사, D.Min.재학 중>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칠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경석입니다. 제가 AI를 연구하기 시작한 자리는 다름 아닌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D.Min. 과정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출발점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곳이었습니다. 강남순 교수님의 철학적 성찰을 목상하던 중, 오히려 ‘질문과 성찰’이라는 영역에서 디지털 목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답을 얻는 일보다 좋은 질문을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깨달음이, 저를 AI로 목회를 지원하는 강사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AI로 현시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이 과정을 문서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자료를 다시 AI에게 학습시켜 사용해 보니 활용도가 놀랍도록 높아졌습니다. 이 결과물을 전자책으로 엮어 SNS에 소개했더니 예상 밖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발매 한 달 만에 700권 이상이 나갔고, AI 활용법을 소개하는 SNS 페이지는 주당 20만 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강의를 요청하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주관한 <선교사 지원자 본부집중훈련>에서 ‘선교사를 위한 슈퍼 프롬프트 활용법’을 강화 말씀의 집에서 나누었고(58명 참석), 7월 21일에는 목회AI연구소가 주관한 ‘마법의 프롬프트 활용법’ 강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68명 참석). 강의 후 녹화 영상을 요청한 분이 30명을 넘어, 목회 관련 AI 강의로는 이례적인 참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는 9월 7~8일에는 삼남연회 미디어부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D.Min. 프로젝트의 주제를 ‘목회 현장의 AI 활용에 대한 인식’으로 잡아 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상의하며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질문의 힘’이 한국 교회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한국기독교신학논총에 논문 실리다_이정환 목사



〈사진: 이정환 목사, D.Min.재학 중〉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월에 입학한 예장 통합 소속 목사로, 화곡동 교회에서 사역 중인 이정환입니다. 올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41호에, 「파레스시아 (παρησια)의 삼중 구조와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적 함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2026년 겨울에 우진성 교수님의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New Testament 수업을 들으면서 깊은 사유와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응축된 가르침은 언제나 큰 축복입니다. 그 가르침 중에, “‘에클레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가 ‘파레스시아’”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친 후,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파레스시아’라는 단어를 모두 찾아 정리해보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신약에서 사용된 파레스시아가 공적 증언, 예배적 접근, 종말론적·윤리적 책임이라는 삼중 구조 안에서 재배치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는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 책임지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저는 CST의 수업 방식이 참 좋습니다. 일주일간 교수님들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후 개인적으로 곱씹으며 사유할 시간을 가지며, 교회에 적용할 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생기 있는 교육’ 같습니다. 이제 과정의 절반을 지났다는 것이 아쉽지만, 남은 과정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업하며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께도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2027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한국어) WASC & ATS 승인: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100% 원격 수업 인증으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1월 겨울학기: 한국에서 대면 현장 집중 수업 진행
- 7월 여름학기: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집중 수업 진행



미국 내 대면 수업 없이 여행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에
대한 부담 없이 신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특징:

- 현장 중심 학습과 원격 학습의 통합
- 유연한 시간 관리와 학습 환경
- 뛰어난 교수진과의 실시간 상호작용



CST에 입학하여 새로운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세요!

2026-2027 기부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기준 -

Donor Name	Amount
이경식 부총장	\$7,100
월서연합감리교회	\$2,000
LA연합감리교회	\$10,000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일 기준)	\$19,100
KEF 잔액(1990.03 - 2026.07):	\$2,611,654
KLS 잔액(2018.10 - 2026.07):	\$882,583
General Fund(2024.03 - 2026.07):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방법 안내

- * 수표: 수표는 받는 사람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로 쓰고 학교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장학금이 아닌 경우 메모란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이라고 명시해주세요.
- * 온라인: 온라인 기부 링크는 <http://cst.edu/give/donate/>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금선택” 아래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항목이 있습니다.
- * 한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외에 학교를 위한 기부를 원하시면 “기금선택”에 “General Fund”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전자 계좌 이체(EFT)를 원하시거나 증권 기증을 원하시면 slee@cst.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